

# DIKM Obsidian 지식관리 메뉴얼 (by 안창현)

## 1. DIKM이란?

DIKM은 'Data → Information → Knowledge → Meaning'의 4단계 사고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하 되, 단순 정보 처리 체계가 아니라 **개인의 실존적 통찰, 철학적 사유, 실천 윤리까지 통합하는 지식-삶 연동 구조**이다. 안창현은 이를 '정론(orthodoxy)'과 '정행(orthopraxy)'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사고하고, AI 시대의 멀티모달 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이 감각, 정서, 언어, 행위, 신념을 넘나드는 살아있는 구조 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DIKM은 따라서 단순한 분류 체계를 넘어,

- 멀티모달한 인풋을 인식하며 (X축)
- 정론과 정행의 상호관계 속에 사고하고 (Y축)
- 하루 0.1%씩의 점진적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함께 고려하며 (Z축)

지식, 경험, 사고, 실천을 하나의 '루틴화된 자기 성장/성찰 구조'로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

## 2. DIKM의 핵심 전제: XYZ축 사고 구조

### 🕒 X축 – 멀티모달 인풋 (Multi-modal Input)

모든 지식은 문자, 영상, 신체 감각, 감정, 육체적 경험을 포함한 멀티모달적 인지경험으로부터 수집된다고 본다. 철학책이든, 유튜브 쇼츠이든, 달리기 경험이든 모두 같은 '지적 단서'로 간주된다. 특히, **전공 간 경계나 도메인 간 장벽을 허물고**,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정보조차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문과생이 건축 공학하기"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주제도, 시각/청각 이외의 감각 채널로 전환해 사유하면 반드시 연결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신념이다.

### 🕒 Y축 – 정론(orthodoxy)과 정행(orthopraxy)의 상호 작용

신념과 실천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정통성 있는 사유는 실천을 통해 현실에서 의미를 얻고, 실천은 깊이 있는 철학과 연결될 때 지속성을 갖는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통찰 가능한 구조이며, Ontology, Epistemology, Ethics를 포괄하는 정론적 사고가 실천적 선택으로 연결될 때, 지식은 생동감을 얻는다.

"내가 믿는 바(orthodoxy)는 실제 삶의 실천(orthopraxy)을 통해서만 비로소 현실에서 의미를 얻으며, 그 실천은 존재와 삶의 근본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연결될 때에만 지속가능한 힘을 얻는다."

## 🕒 Z축 – 0.1% 점진적 성장률 (Sustainable Growth Rate)

'하루 1% 성장'은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며, **DIKM은 0.1%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실패조차 점진적이며, 성공 또한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며, 일관된 루틴과 자기 성찰 루프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성장률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성장 또한 함께 견디고 믿어주는 태도까지 포함해야 한다. '공동체적 성장 루틴'이 내 성장의 조건이라는 전제를 내포한다.

---

## DIKM 4단계 구성 및 폴더 구조

### 3. D: Data (감각적 단서 / 경험 단편)

"삶의 순간에서 수집된 파편들, 아직 의미로 가공되지 않은 감각적·사실적 조각들"

DIKM에서 D는 단순한 기록의 축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잡히는 감각'의 단서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훈련의 시작점이다. 이 단계는 X축의 멀티모달 인풋 개념과 깊게 연결된다. 즉, 데이터는 시각 정보나 개념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러닝 중 느낀 땀의 밀도, 강의 중 마음에 걸린 하나의 문장, 아이와의 대화 속 찰나의 표정, 자기전 떠오른 쓸모없어 보이는 생각 조각까지 모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직 의미를 갖지 못했더라도, '왠지 모르게 기록하고 싶었다는 그 감정 자체가 이미 의미의 씨앗'이라는 전제다. 따라서 이들은 분류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집된다.

멀티모달 사고 기반의 수용성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고는 판단 이전의 '수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 ✅ 정의

- 관찰, 메모, 기록, 아이디어, 감정 반응 등
- 아직 맥락 없이 존재하는 raw한 형태의 자료들
- "쓸모없어 보이지만, 직관이 반응한 모든 것"

#### ? 나에게 묻는 질문들

-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감각은 무엇인가?
-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굳이' 메모하고 싶은가?
- 내 직관이 반응한 이 조각은, 어떤 감정/몸의 반응에서 비롯되었는가?

#### 🧠 포함 예시

- 오늘 달리기 후 심박수 기록
- 강의 중 떠오른 단상
- 우연히 들은 한 문장
- 즉흥적인 생각 / 감정 반응
- 무의식적으로 끄적인 낙서
- 지하철에서 본 어떤 행동 장면

#### ■ 추천 서브폴더

- D-101\_RunningLogs: 러닝/운동 기반 감각 기록
- D-102\_TriggeredThoughts: 번뜩이는 단상/아이디어
- D-103\_EmotionalEchoes: 감정 반응 기록
- D-104\_SensoryCaptures: 이미지, 풍경, 청각적 단서 등 비언어적 감각 수집
- D-105\_DialogueScraps: 말 한마디, 대화 중 인용 등 언어 기반 촉발기록

## 4. I: Information (정보화 단계)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흐름이나 의미가 어렴풋이 잡히기 시작하는 단계"

Information 단계는 D에서 수집된 단편들이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사고 흐름이 초기적인 맥락화를 시도하는 국면이다. 이 단계는 사고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첫 구조화의 층위이자, 사유의 설계도 초안을 그리는 부분이다. 단순한 수집으로 끝났던 단서들이 서로 관련성을 띠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가 된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관계성', '범주화', '시그널화'다.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키워드, 개념들의 뉘앙스 차이, 서로 멀리 있던 것들의 미세한 구조적 공명 같은 것들이 이 시점에 포착되며, 정보 간 맥락과 연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구조화는 Y축의 정론/정행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념적 분류의 씨앗이 되며, 동시에 Z축의 점진적 반복과 패턴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단계이기도 하다.

#### ✅ 정의

- 데이터를 분류·범주화하여 구조와 맥락을 부여하는 단계
- 연결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함
- 의미 있는 시그널 또는 분류 단위로 나뉘어짐

## ? 나에게 묻는 질문들

- 이 데이터들 사이에서 반복되거나 이상하게 엮이는 흐름은 무엇인가?
- 이걸 어떤 테마 혹은 나의 오래된 질문과 연결되는가?
- '이건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내 직관의 기준은 무엇인가?

## 🧠 포함 예시

- 반복되는 키워드 분석
- 주제별 흐름 정리
- 러닝 기록에서 나타난 변화 패턴
- 신앙 키워드 정리
- 자주 등장하는 감정/개념들 목록화

## 📌 추천 서브폴더

- I-201\_TopicsByTheme: 고통, 루틴, 지옥, 신앙, GPT 등 주제 중심 분류
- I-202\_RepeatingPatterns: 패턴 탐지, 빈도 기반 정리
- I-203\_TerminologyBank: 나만의 개념사전/정의집
- I-204\_TaggedClippings: 뉴스/논문/인용문 스크랩 및 태깅 정리
- I-205\_PreConceptMaps: 개념 간 잠정적 연결 시도, 미완성 사고망 초안

## 5. K: Knowledge (사유된 지식 / 연결된 통찰)

"정보들을 나의 맥락과 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이들 사이에서 '이해 가능한 체계'를 발견한 상태"

Knowledge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가 구조화된 정보로 발전한 이후, 그것이 **나만의 철학적 사고 흐름 안에서 연결되고 해석되는 고유의 지식 체계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이 단계에서 지식은 단지 사실이나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나의 존재론·윤리적 관점·경험적 통찰과 연결되며 **'자기화된 철학'**으로 변환된다.

DIKM의 Y축인 **정론(orthodoxy)** 과 **정행(orthopraxy)** 은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정보는 삶에 대한 사유로 변환되고, 철학적 통찰로 굳어지며, 반복되는 패턴과 감정, 상황, 실천의 구조를 관통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응결된다. 또한 Z축의 '**0.1% 성장률**' 은 여기서부터 **사유의 누적과 연결성**을 통해 점진적 진보로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나오는 노트는 단지 요약이나 정리가 아닌, **사유의 구조화, 연결의 고리, 윤리적 자기형성을 보여주는 메타노트 또는 통찰노트**로 기능하게 된다.

## ✔ 정의

- 정보들이 나의 철학, 신념, 경험과 연결되어 고유한 의미체계와 프레임으로 변형된 상태
-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게 된 지식"
- 철학적 사유, 메타인지, 구조적 통찰이 드러나는 공간

## ? 나에게 묻는 질문들

- 이 정보들을 나만의 철학이나 신념과 연결시키면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가?
- 이걸 왜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 이 통찰은 어떤 윤리적 기준, 또는 실존적 긴장과 연결되는가?

## 🧠 포함 예시

- 미드 '루시퍼' 속 지옥과 러닝 루틴을 '의식적 반복'으로 해석한 노트
- 자녀 훈육에서 자기통제 철학 도출
- 육체적 루틴 → 멘탈 구조 분석 → 정행 실천론으로 이어진 통찰 구조
- 개별 주제 간 '통섭적 연결'을 명확히 드러낸 사고 지도

## 📌 추천 서브폴더

- K-301\_FrameAndModel: 프레임워크, 창작 구조, 사고 도식화
- K-302\_MentalInsights: 반성적 통찰, 자기화된 깨달음
- K-303\_ConnectedDots: 개념 간 관계 연결 시도, 메타 연결망
- K-304\_BridgeNotes: 도메인 간 통섭적 연결, 전공 간 철학적 가교 역할

## 6. M: Meaning (정행적 적용 / 실천과 의미화)

"지식을 실천으로 구현하거나, 타인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는 단계"

Meaning 단계는 DIKM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되는 지점이다. 이 단계에서 지식은 더 이상 머릿속 구조나 문서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삶의 루틴, 창작물, 타인과의 관계, 교육, 실천, 윤리적 실천으로 '현현(顯現)'된다.**

DIKM의 Y축인 **정행(orthopraxy)**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계이며, X축의 멀티모달 수용과 Z축의 점진적 성장 개념은 모두 '**실천 가능한 반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 단계에서 재구성된다. 내가 세운 프레임, 사유, 철학, 통찰은 이 시점에서 타인에게 공유되거나, 콘텐츠로 제작되거나, **윤리적 삶의 기준이 되거나, 나의 신체/가정/사회 안에 실현되는 루틴으로 전환된다.**

이 단계는 '결과물'의 차원이 아니라, 사유와 존재가 일치되는 '정행'의 상태를 지향하는 루틴 기반의 행위 철학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Meaning 단계는 지식이 의미가 되고, 의미가 실천이 되고, 실천이 다시 성찰과 연결되어 다시 DIKM의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지식 루프의 출구이자 재진입점이다.

#### ✔ 정의

- 사유된 지식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공유·확산되는 단계
- 철학을 살아내는 방식이며, 존재로 번역된 지식
- 루틴, 커리큘럼, 창작 프로젝트, 윤리 선언, 자문 등이 포함됨

#### ? 나에게 묻는 질문들

- 지금 이 통찰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 이걸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은가?
- 나의 루틴과 실천이 이 통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 포함 예시

- AI 기반 강의 커리큘럼 기획 및 전달
- 러닝 루틴을 '멘탈 관리법'으로 구조화하여 타인에게 공유
- 훈육 철학을 블로그나 강의로 공유
- '나의 10계명'처럼 존재론을 실천 윤리로 전환한 텍스트
- 팀원/가족/학생들에게 전달한 윤리적 조언

#### 📁 추천 서브폴더

- M-401\_Routines: 삶 속 반복 실천, 신체화된 지식, 생활윤리
- M-402\_TeachingMaterials: 강의안, 슬라이드, 커리큘럼, 교육 설계
- M-403\_AIAndDesign: 창작 기반 응용 실천, 디자인/플랫폼 통합 결과물
- M-404\_ContentProjects: 블로그 글, 유튜브 스크립트, 텍스트 기반 콘텐츠
- M-405\_EthicalDeclarations: 자문/조언/가치 기반 선언, 실천 윤리 요약

## 7. 맺음말: DIKM은 '나의 사유가 존재가 되는 여정'이다

DIKM은 단순한 노트 분류 체계나 지식 저장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사유가 정리되고, 통찰이 구조화되며, 실천이 루틴화되고, 결국 존재 전체로 확장되는 존재론적 자기구성 도구다.

여기서 '지식'은 단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감각과 단상, 고통과 회의, 통찰과 분투의 기록들이 DIKM 구조를 타고 점진적으로 진화해갈 때, 그것은 나만의 실존적 윤리로, 반복 가능한 루틴으로, 타인과 연결되는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이 시스템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고리다**. DIKM은 지식이 존재를 변화시키고, 존재는 다시 사유를 불러오며, 다시 실천을 통해 의미화된다는 **사유-실천-존재의 피드백 루프**를 설계한다.

결국 DIKM은, 단지 분류법이 아니라, **사유 → 실천 → 존재로 확장되는 순환구조, 살기 위한 지식, 성찰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루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기록으로 응답하게 하는 구조**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나는 어떻게 사고하고, 기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로 답하게 만드는 나침반이다.

## 📁 부록: DIKM 사용 전략 정리

### ⌘ 1. 노트 이동 전략 (Cross-Stage Navigation)

데이터가 정보로, 정보가 지식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실천 규칙

- **D → I**: 반복되는 감각/키워드 발견 시, 클리핑 그룹으로 이동  
예) D-103\_EmootionalEchoes → I-202\_RepeatingPatterns
- **I → K**: 한 테마 내에서 통찰 연결이 2개 이상 생기면 프레임화  
예) I-201\_TopicsByTheme: 고통 → K-301\_FrameAndModel: 고통의 메커니즘
- **K → M**: 실제 적용/공유하려는 흐름이 보일 때 의미화  
예) K-302\_MentallInsights → M-404\_ContentProjects: [강의안 초안.md]

### 🧠 2. 주기적 리마인드 루틴 (Weekly DIKM Review)

'지식 루프'를 계속 돌게 만드는 유지 전략

- **\*\*매주 일요일 저녁 (또는 매주/매월/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다음 질문에 따라 전체 노트를 다시 점검:**
  - D: 이번 주 가장 많이 기록한 감각은?
  - I: 가장 자주 등장한 개념/패턴은?
  - K: 이번 주 "나답게" 해석한 통찰은?
  - M: 어떤 행동/기획/조언으로 실천했는가?

→ 이 루틴 자체를 M-401\_Routines 에 기록하면 자기 피드백 구조로 완성됨.

---

### 3. GPT와의 연동 전략 (AI Prompting Integration)

AI를 활용한 자기 메타인지 훈련 또는 자동화

- 입력 프롬프트 예시:

아래 메모는 DIKM의 어느 단계에 가장 가깝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프롬프트별 반응 예시:

- D 단계 → “이는 아직 단편적인 감각 조각으로, 다른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I 단계 → “몇 개념 간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철학적 해석은 미진합니다.”
  - K 단계 → “당신만의 프레임과 연결되어 자기화된 사유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 M 단계 → “이건 실천을 통해 타인과 공유되고, 실제 삶으로 구현된 상태입니다.”
- 

### 4. DIKM 교육 적용 전략 (Teaching & Mentoring)

DIKM을 대학 수업, 리터러시 교육, 리더십 훈련에 적용하는 방식

- 강의 설계 시:

- “과제물 작성 전, 각자 DIKM 4단계로 노트 1개씩 제출”
- “학생 간 M-404 콘텐츠 비교: 실천의 다양성과 해석의 차이 피드백”

- 멘토링 활용:

- 후배에게 지식 전달이 막힐 때: “그거 I에 머물러 있는 거 아냐?”
- 자기성찰용 과제: “이번 학기 K 단계 노트 3개, M단계 실천 예시 1개 정리해서 공유”